

개헌과 민주주의 정신

숨 가쁜 정국의 위기를 앞두고 온 국민은 이 나라의 장래를 몹시 걱정하고 있다. 삼선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번져진 여론의 비등과 열, 그리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학생 데모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몹시도 안타깝기만 하다. 건국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오늘의 정치 현실은 국가의 장래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는 지각있는 인사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할 때 흔히 정치 정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치 정의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로 압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행정이나 정치는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민생과 민영을 돈구어 주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골고루 윤택하게 떡을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이 제일가는 관심사일 것이다. 이 대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과 정신력을 터전으로 하는 힘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회 건설의 중추 지도력 자체 안에 때로는 문제의 씨가 움트기 쉽다. 세계 어느 국가에든지 이러한 집권당의 문제가 없는 때가 없고 또 이로 말미암은 정권 교체가 있어 왔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인 것이다.

며칠 전 야당을 이탈한 소위 변절 위원들이 야당 해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그의 옛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이번 개헌 문제가 좌착이 되면 국영 기업체나 어느 나라 대사로 나가게 될 테니 그때

까지만 야당이 해체하지 않도록 지지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신문이 전한 바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의분을 느끼기에 앞서 우리 나라의 정당 정치의 본질을 폭로시킨 것으로 본다면 웬일인지 한 가닥의 처량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그 진부야 여하튼 결국 그러한 언질이나 약속을 받아서 변절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언질을 누가 줄 수 있는지 모르나 이런 언질에 변절하는 따위 정치인이 있음을 볼 때, 정말 국가 백년의 대계를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눈 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 목구멍을 넘겨야 할 몇푼짜리 떡에 눈이 어두워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문제를 희생시키는 정치인을 반드시 그 변절 의원 세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도 좋을 것인가? 떡을 먹어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먹는가 하는 것이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떡을 먹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자세의 문제이다. 떡을 배불리 먹고나면 저절로 좋은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요, 가치의 뒤바뀐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 정의는 바로 이 떡을 받아먹는 기본 자세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경제 부흥만 잘 되면 이 나라에 민주주의 꽃이 피리라고 기대한다면 이것 역시 망상이다. 경제적 부흥을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 자체가 민주주의적 훈련이나 견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 경제 건설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굶주렸고, 압박을 받아 왔고, 자주적인 일을 못해 왔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 갑자

경제 건설이 잘 된다는 자찬, 타찬에 황홀해졌다. 눈 앞에 공산주의 도전과 전체주의적인 위협을 두고, 이러한 근시적인 태도를 안목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변절의원이 나오고, 정치 정의를 몰각하는 태에 대해서 우리는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요즘 일간 신문 지상 나타난 기독교계의 성명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픈 가슴을 달랠 길이 없다. 어쩌면 교회마저 이런 판국에 어지러운 불결 속에 뛰어들어 가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만든다.

교회의 부패는 분열과 작당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열을 틈 타는 세력이나 틈 타게 하는 쪽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눈물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순수한 교인들을 현혹케 하고, 민심에 혼란을 일으키고도, 선한 목자인체 하는 거짓 예언자들, 가짜의 무리들이 어찌 민족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참된 복지 사회, 민주 사회 건설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룩하는 길 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